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전주시, 11월 2~3일 영화 '니얼굴' 상영·관객과의 대화·신규공무원 대상 오찬회 작가 특강 등 진행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행사를 연다.

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구도심 일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기념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022년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인권의 시선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전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권공감 문화행사의 첫날에는 2022년 상반기 전주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찬회 작가

특강과 인권힐링 체험 프로그램 △생태 테라리움 만들기 △천연 수분크림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전주 씨네Q에서 다문중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가 있는 캐리커처 작가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을 상영하고, 영화 주인공인 정은혜 작가와 서동일 영화감독(정은혜 父), 영화 출연진인 장차현실(정은혜 母)과 함께 대화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정은혜 작가는 최근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육(한지민 분)의 언니 역할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100여 명의 관객만 사전접수를

를 받아 진행되며, 사전신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관객과의 대화는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을 지원하며, '인권도시 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침해의 반성으로 채택했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산조본색'

11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기악단 정기공연 '산조본색'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민속음악의 분류로 대표되는 산조를 주제로 구성했으며, 산조는 기악독주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1981년 6월 9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故서용석 명인을 비롯한 민속악계의 거장들에 의해 합주 형태로 연주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1981년 초연된 '서용석류 산조합주 전 바탕'(이하 산조합주)을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의 연주로,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은 국악연주단 안에서 창극의 반주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무용반주, 민요반주 등 민속음악에 능하고 남다른 성음을 자랑한다. 이번 기악단의 정기공연의 전 바탕 연주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공연의 시작은 산조합주의 본류(本流)라 할 수 있는 '시나위' 연주로 시작한다. 1981년 산



광한루서 열린 산조합주 모습

조합주를 구성하는 현장에 참여했던 김무길, 심상남 명인, 민속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故 서용석 명인의 장남이자 아쟁연주자로 왕성한 활동 중인 서영호 명인, 30년 전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단원으로 입단해 예술감독으로 다시 돌아온 조용안 명고의 연주로 세상이 회노 애락을 풀어낸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연 종료 후에는 관객에게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해 판소리 '수궁가'의 주요 대목을 일러스트로 구성한 스노우벙 탕상달력을 무료로 증정하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어린이 눈높이 맞춘 성평등 패널시어터 순회 공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도내 시·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패널 시어터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초등학생 성평등 패널시어터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해 문화 소외지역에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패널시어터는 패널(Panel)앞에

서서 그림 종이인형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동화 구연 방식으로, '너희는 왜지?'라는 제목으로 연 이번 공연은 그림책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 그림책인 '돼지책'을 각색해 초등학생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준비한 맞춤형 극이다.

특히 진행자의 손놀림에 따라 인형이 움직이는 동시에 공연자와 어린이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올바른 성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



위기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일 익산시에서 막을 연 이 공연은 7일 전주, 19일 정읍, 21일 전주, 26일 부안을 마지막으로 총 5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은성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무엇을 기억하며 남겨야할지'

가야금 연주자 배유경 싱글 미니 앨범 '쉽'

가야금 연주자 배유경씨가 싱글 미니 앨범 '쉽'이 국악 매니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배유경

싱글 미니 앨범 '쉽'은 과거의 시간을 기반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남겨야할지 질문을 던지는 앨범으로, 감히있어야만 했던 시간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슬픔 행복을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와 위로를 담았다.

'쉽'은 마치 다 큰 어른이 소꿉 가지 전 날 밤에 설레하는 감정을 담은 메인 타이틀곡 '소꿉', 해금 연주자 이숙씨와 공동으로 연주한 'The wedding', 그리고 18현 가야금을 위한 '봄빛' 등 드라마 공작곡가인 김현보씨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이고운 작곡가의 곡으로 구성돼 있다. 가야금 연주자 배유경씨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석사과정을 밟았고, 현재



싱글 미니 앨범 '쉽' 앨범 자켓

KBS 국악한마당 전속반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참여한 해금 연주자 이숙씨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을 졸업했다.

한편, 배씨의 싱글 미니앨범 '쉽'은 지난 8월 10일 발매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9~2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박람회인 ITB Asia 2022에 참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 전북문화관광재단, 'ITB Asia' 참가 해외 마케팅 전개

아시아 최대 관광·마이스 비즈니스 전시회로 싱가포르서 열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9~2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박람회인 ITB Asia 2022에 참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127개국 약 1만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ITB Asia 2022에서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한국홍보관에 참여해 약 3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ITB Asia는 아시아 최대 관광 및 마이스

비즈니스 전시회로 코로나 이전 약 132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실시, 기업 회의 및 포상관광 현지 여행사 등 다국적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여행시장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라북도 많은 해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